

소비자가 바라는 인삼약초의 안정성 확보 방안

김 동 철
조선일보 편집부 국장

♣인삼은 만병통치약(?)인가

<기(氣)와 혈(血)의 조화를 통한 혈액순환에 좋고 심장기능을 강화시켜 정신병,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으며 폐기능을 보강해서 호흡기질환에 예방효과가 있다. 또 위장을 다스려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는다.>

우리나라 인삼의 효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일반 소비자라면 인삼의 효능에 대한 위와 같은 상식수준(?)의 내용은 거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인삼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효능이 좋은 것인지, 또 누구나에게 모두 들어맞는 <만병통치약>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자료분석과 함께 대 국민(소비자)홍보가 앞

서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삼의 부작용은 없는가?

한의학 전문의의 말을 빌려보자.

<인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얼굴의 홍조, 둔중감, 가벼운 두통, 갈증, 가벼운 안구충혈, 피부반진, 구건(입이 마르는 것)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인삼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작용의 원인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양인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통체격 마른편, 피부백색 또는 황색, 내성적 경향, 식사랑이 저고 소화기능이 약한자, 손발차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고 물을 잘

찾지 않는 사람, 즉 소음인의 체질에는 잘 맞는다.>

흔히 열이 있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맛다. 두통이나 입마름, 가슴 답답함, 코피, 안면상열감, 불면, 변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부작용이다. 손발이 뜨겁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홍삼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홍삼은 인삼을 썬서 효과를 높인 것으로 인삼보다 효과가 부드러우며 소음인에게 효과적이다. 중추신경 진정작용, 흥분작용, 고혈압-동맥경화 이완작용,



조혈작용, 간보호, 성기능향진효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홍삼은 인삼과 달리 부작용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

인삼이 비아그라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인가.

고개속인 남성의 발기부전치료에 인삼이 비아그라보다 싸고 효과도 좋다, 그래서 대안 상품이 다라는 통설이 나돌자, 인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포닌이 포함된 인삼은 산화질소효과를 내기 때문에 강장제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안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허브로 분류돼 일반 건강식품 가게에서 팔리고 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 비아그라의 대안상품인가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상인들은 인삼 1백 캡슐들이 한병 가격이 3~4만원(20달러)인데 비해 비아그라는 1정의 가격이 8달러이므로, 30~40 정도의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삼이 비아그라의 대용품이라

고 선전하는데 이 역시 과학적 근거와 검증과정을 설명한 자료가 첨부돼야 우리나라 인삼이 국제무대에서 명실상부한 강장제로서 역할과 국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